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름계절학기 참관기

An Essay on The Visit to The Summer School Offered at Yan Bian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by Yoo Won-J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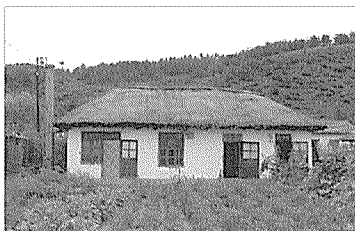
중국 동북부의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한반도와 접해있고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있다. 이 3성중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은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의 연길시에 자리한다. 이곳은 1992년 250만 조선족 동포의 생활환경의 향상과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중외합작대학(총장 김진경 박사)으로 설립되었고, 공과대학, 상경대학 및 외국어대학, 교양학부가 있으며, 간호대학 신설을 위해 건축 공사 중에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9일부터 3주간 2학년설계 스튜디오를 한동대학의 김학철 교수와 같이 담당하였다. 3학년스튜디오는 스위스 추리히 공대 HERMANN EPPLER 교수와 연변 과기대 주수일 교수가 맡았다. 중국은 새 학기 시작이 9월이라 4학년은 이미 졸업한 후였다. 3학년 스튜디오의 과제는 어느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고, 필자의 스튜디오는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던) 연길시에 있는 조선족 영웅인 주덕해의 기념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하였다. 학생들의 기초조사를 통해 주덕해가 연변을 조선족 자치주로 만드는 일을 성사시킨 자랑스런 동포라는 것도 알게 됐다.

연변 과기대의 교훈은 진리, 평화, 사랑이다. 그래서인지 이 곳 교수진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이곳의 학생들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있다. 이런학생들을 따 뜻이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이곳 조선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진으로 키워나가는 교수진의 모습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과의 사고방식이나 용어선택상의 차이를 메꾸어 나가는 일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순수하여 오염되지 않은 물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욱 애착을 느꼈지만, 체제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성장한 우리와는 역시 사물을 읽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듯 하였다. 한번은 기존의 주덕해 기념공원이 상징적 기념비만을 위한 장소이어서, 좀 더 현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고 제안했더니 한 학생이 시민이 아니고 인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곳은 연길시이기에 시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해도 되지않겠냐고 했다.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는 우리 스튜디오가 진행되면서 종종 일어났고, 이같은 경험은 필자에게 이곳 친구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단서들이었다. 학생들은 주로 북한어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개념이나 생각을 주고받는과정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우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 긴 대화가 필요했으며, 특히 필자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전경



조선족 주거외관



연길 조선족주거내의정지(부엌)

자유개방의 의미와 의욕적인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연길의 여름 날씨는 위도가 높기때문에 기온이 서울보다 비교적 낮아 지내기엔 좋다. 매년 이쯤이면 세계 10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 교수들이 여름계절 학기 강의를 위해 연변 과기대에 성시를 이룬다.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 봉사 온 교수들은 단지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는 듯하다. 여러나라에서 온 지식인들이 학문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봉사에 익숙치 않은 필자로서는 처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던 보람의 깊이가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상상하고 점차 몸으로 느껴보곤 했다. 계절학기 중에 유 걸 선생이 방문해 특강을 해주었고, 얼마전엔 민선주 선생도 봄학기 종강 크리틱에 참석했다고 들었다. 고마운 분들이다.

주말에는 연길시에 나가 우리동포의 생활상을 들여다 보고, 교외에 있는 조선족 마을을 방문해 북방지역의 주거형식을 직접 확인했다. 그곳에서 환경에 호응하는 건축이란 어떤것인가를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이곳의 주거형식은 특이하다. 추운 길림성 지역의 겨울살이를 위해 아궁이 딸린 부엌과 온돌방을 같은 레벨로 맞추어 그 공간을 정지(아궁이를 덮기 위해 마루널판을 이동식으로 깔았다)라 하고, 여기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다.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평탄한 바닥에서 작업도 하면서 밤엔 그곳이 또한 침실이다. 동절기에는 화장실만을 빼고 모든 생활을 이 한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나누어 해결한다.

연길 주변에는 어릴 적 만화에서 본 항일 독립군들의 호연지가 들릴 것같은 광야, 개울같은 두만강을 사이로 북한을 볼 수 있는 도문시, 시인 윤동주 등과 같은 많은 문인과 독립지사들을 배출한 대성중학교, 헤랑강이 있는 용정시, 우리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등이 있어 우리에게겐 좋은 역사 기행지가 많이 있다. 필자는 과기대에서 마련해 준 버스 2대로 봉사 온 여러 교수들과 천지를 둘러보고 마음 뿌듯해 했던 기억이 있다. 백두산 부근의 그 끝없는 자작

나무 군락지, 그 울창함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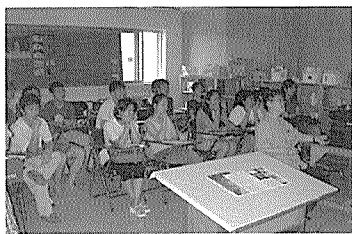
비록 3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수 기숙사가 캠퍼스내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자유개방이라는 시대 흐름 안에서 새로운 물결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고, 현대건축에 관한 정보의 창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열심히 찾아내려 애쓰는 태도가 아름답게 보였다. 과기대 교수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졸업생들의 실력은 매년 현저한 향상을 보이고, 덕분에 중국에 나와있는 한국 현지 기업체에 다수가 취업해 있는 상황이다. 짧은 학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에서도 전례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주목을 받는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곳 학생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중국에서는 국가 공인 영어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를 모두 구사하고 있어, 앞으로 졸업생들이 북한, 중국, 한국의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일 또한 이들의 몫으로 보인다. 사협회회원이었던 박세영, 김준봉, 손신원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연변과기대 교수진이다.

필자의 경우 매년 지루해 하며 보냈던 예전의 여름과 달리, 옹기내어 마련한 3주간의 시간이 뜻깊은 기억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당연히 받아들였던 물질이나 문명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각, 조선족에 대한 막연함 등등... 여러가지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숙제몽치로 안고 그곳을 떠나왔다. 총경비는 항공료 41만원이 전부였고, 숙식은 대학에서 제공해 주었다. 필자가 그곳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양에 비하면 조금 미안할 정도의 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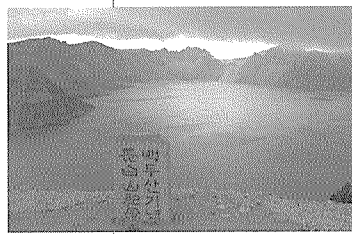
혹 독자 중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돕고 싶은 분은 서울 역삼동 계몽문화사빌딩내 연변과기대 서울 후원회 사무실(02-561-2445)로 연락하면 된다. 건축 서적- 신간서적이 아니어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 안쓰는 컴퓨터, 건축 모형재료 등이 이곳에는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ㄹ



HERMANN, 주수길 스튜디오



김학철, 유원재 스튜디오



백두산 천지



연길시내